

제319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행감8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 :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일시 : 2022년12월01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은 5건입니다.

2021년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액 2,320만 원이 충청북도 교부지연에 따른 당해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개최 불가로 인하여 예산액 1,320만 원 중 51만 원을 집행하고 1,2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매세먼지 저감대책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신청 미비로 인하여 예산액 3억 668만 원 중 1,542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12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지원은 도비사업의 시비추가 분으로 추가 사업신청이 없어 예산액 3천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미실시되어 예산액 83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은 2건입니다. 2021년 케이블카 주변 경관작물 조성사업은 청풍면 신리마을에서 신청되었는데 이장님 병안으로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따라서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은 사

업신청이 없어 1,3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7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1건입니다.

2021년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액 2,320만 원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2년 9월 29일 교부결정 되었으며, 현재 사업완료로 보조금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2,320만 원에 자부담 58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9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8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2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본관 청사외벽 보수공사는 점검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은 2건입니다.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창업농의 의무영농기간 동안 전업영농의 의무를 직장근로로 인해 의무영농을 위반하여 보조금 435만 원을 환수완료 하였습니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농가주 병환으로 일부면적을 타인이 농사짓는 것이 농관원에 적발 통보되어 보조금 120만 원을 환수완료 하였습니다. 보조금환수금액이 120만 원인데 1,200만 원으로 잘못표기 되었습니다. 향후 더 꼼꼼히 챙겨 오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7건으로 농림축산식품심의회 4건과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주요내용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공약 관련 부서별 추진

계획 및 예상 성과로 첫째, 외국인계절 근로자 도입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번기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16농가에 34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운영 및 출국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초청 및 해외 지자체 MOU 추가체결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운영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724농가에 4,962건의 중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영농작업반 전문화조직 구축, 남부면 인력중개 강화를 통해 원활한 농촌인력수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관내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보장 및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22년 103억 4,600만 원의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자금의 이차차액지원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천시 중·소농, 영세농을 위한 대책 및 추진계획은 첫째,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익입니다. 금년도에는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농가당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가수당이 지속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지속 협의추진 하겠습니다.

둘째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셋째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넷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다섯째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 여섯째 영농기계화 장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사업 검토중으로 충청북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에 46억 5,600만 원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은 4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에 의거 정상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에 46억 6,3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사업추진 실적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실적확인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및 농가보험금 수령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수령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318ha이고 신청품목은 17개 품목으로 사과, 배, 고추, 벼, 조사료용 벼, 복숭아, 고구마, 옥수수, 인삼, 자두, 콩, 시설작물, 원예단동하우

사, 원예부대시설, 원예연동하우스, 인삼, 포도입니다. 보험료는 24억 7,728만 8,930원입니다. 보조금 수령내역은 지원농가 수는 133농가이며, 사고원인은 냉해·동상해, 병충해, 바이러스병, 조수해, 태풍, 강풍,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작물은 벼, 고구마, 고추, 사과 등으로 지급액은 9억 1,51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수령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418ha이고, 신청품목은 12개 품목으로 사과, 배, 인삼, 대추, 벼, 고추, 고구마, 옥수수, 콩, 원예단동하우스, 원예연동하우스, 시설작물입니다. 보험료는 19억 9,670만 1,850원입니다. 지원품목에서 2021년에는 17개 품목이고, 2022년도에는 12개 품목입니다. 5개가 제외됐는데 제외품목은 조사료용 벼, 복숭아, 자두, 원예부대시설, 포도가 되겠습니다.

보험금 수령내역입니다. 수령내역은 2022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농가수는 44농가이고, 사고원인은 강풍과 호우입니다. 피해작물은 인삼, 고추, 콩, 원예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1억 4,279만 8천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재해가 8월 긴장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횟수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3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운영실적은 사업비 8,900만 원으로 제천시에서 직영운영 하였습니다. 농작업자와 구인농가의 근로인력중개 및 지원으로 1,011농가에 4,55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 운영실적은 총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제천시 농촌인력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인력중개 및 출퇴근 운송사업으로 농작업 전문인력단 조직·운영을 통한 민간주도형 인력수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작업 희망 구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출·퇴근 운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10월 26일 기준으로 724농가에 4,962건입니다. 현재 11월 말 실적은 919농가에 6,047건으로 금년도 사업은 종료하고 2023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임금단가 차이로 인한 영농작업반의 민간 인력시장 이탈방지대책 강구와 농작업 보험 강화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장거리 농작업 인력 수송비에 대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추가지원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거리기준 없이, 인력배정 시 농가에서 운송비

로 3만 원을 부담했는데 남부면에 배정할 경우에는 운송비에 대한 연료 및 시간 등이 많이 들어 끼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3년도에는 50km를 기준으로 시내권·북부권·금성면까지는 농가에서 3만 원을 부담하고 50km 이상 지역인 수산면에는 2만 원, 덕산·한수면에는 4만 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4번,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농업용 콤바인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32대를 지원하고 1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실적확인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5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현황은 2022년 4월~9월이며, 교류 지자체로 필리핀 팍상한시에서 16농가에 34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4월 14일 입국해서 9월 20일 출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통역지원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지원계획을 보면 2018년에는 11농가에 25명, 2019년에는 44농가에 77명, 2022년에는 16농가에 4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합이 71농가에 136명입니다. 작목별 지원현황은 원예특작 분야에 41농가에 83명, 특용작물 분야에 22농가에 34명, 과수 분야에 12농가에 19명으로 합계가 75농가에 136명을 지원하였는데 작목이 복합영농으로 4명이 중복계산 되었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에 1명, 특용작물 분야에 3명이 중복되어 실제 농가 지원은 71농가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농가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추가도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8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3개월 기간 결혼이민자로 15명, 5개월 기간 결혼이민자로 35명, 하반기에는 3개월 기간 MOU지자체로 3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와 불법채류 방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실효적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교류지자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조치 현황을 보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직장근로로 인해서 의무영농을 위반했는데 왜 처음부터 직장이 있는 사람을 청년창업농으로 지정을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처음에는 직장이 없고 영농만 했습니다, 선정될 때는.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현장확인 점검도 하거든요. 그때 적발이 돼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랬을 때는 전체보조금을 전체 환수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전체는 아니고요. 영농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하고 직장 근무한 시점부터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마이크를 당겨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올해도 우리 농민들 도와주시고 농정정책에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경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에서 이게 현재 2건은 2021년도 건데 2022년에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박영기 위원 6쪽에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이 있죠. 이게 선정방법이 어떻게 단체 이외에 개인농가들한테도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여기에 대한 8건은 단체로 나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농가에서 신청해 갖고 농가에 확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일반농가 쪽으로 다 나간단?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개별농가로 돼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인력지원센터 운영실적인데 총 사업비가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농가의 숫자를 보면 2021년도에는 1,011농가가 되고, 2022년도에는 724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수

는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거의 배가 늘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단지 아쉬운 게 저희들 연중 작업자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0명, 4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저희들은 모집한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계속 운영한 것은 한 30명 정도 되고요. 시중으로도 많이, 단가 차이로 인해서 시중으로도 많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령자들이 조금 많아 갖고 매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운송비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은 상태입니다.

○**박영기 위원** 2021년도에는 제천시에서 직영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인력중개 쪽, 운송사업 쪽에서 진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개실적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액수의 차이는 거의 배 정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단가 차이로만 해서 이런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단가 농작업자가 갖고 가는 거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만 원씩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할 때는 운송에 대한 대책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봉고차 3대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또 수입이 돼야 되니까 농가에서 3만 원씩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내년 보고도 드렸지만 조금 운송비에도 남부 쪽의 먼 데는 시에서 보조가 들어가야 원활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실적 양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차이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쭙본 거고요.

11쪽에 보면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농기계대여소가 제천 우리 시에 3곳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농기계대여사업은 확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농민들이 향시 쓰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뒷장에 방제기(드론)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드론을 구입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따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구입비입니다.

○**박영기 위원** 구입비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박영기 위원** 자격증을 따는 데는 혹시 지원해 드리는 게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자격증 따는데 저희 실과

에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드론이 저희들 금년 계획이 3대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자격증소지자에 한 해 갖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직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 갖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방제드론을 사용하려면 드론1종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1종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난이도가 아주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자비나 어떤 학습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거는 기술보급과에서 연계해서 아마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는 기술보급과 하고요.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받은 2022년 농업인의날 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급, 보조금은 무엇보다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사용함에 있어 철두철미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같이 공감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공감합니다.

○**박영기 위원** 정산서에 보면 평가표를 제가 봤어요. 평가표를 봤는데 총점 및 등급에 매우 우수라고 해서 과장님 서명까지 이래 있는데 지금도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전반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면서 다과 및 식대 이런 것이 지출됐을 때 여기에 합당하는 지출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게 첨부가 돼있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갖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출하신 서류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이 5천만 원이 나갔는데 식대로 각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어요. 이게 식대가 지출되고 나면 그 식대로 지출된 근거서류도 있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있어야 됩니다.

○**박영기 위원**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이, 나쁘게 얘기하면 언어순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눠먹기 아닌가. 서류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돈이 100만 원씩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는 근거는 여기에 전

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영수증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서류는 못 봤는데요. 제가 그거 확인해 갖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일단 이거 정산보고서에 과장님 사인은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직원이 사인해 갖고 보고를 하는데 이상 없다고 그래 갖고 제 사인을 한 부분이고요. 세부검토는 못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그것도 한번 챙겨서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어느 단체의 행사도 마찬가지로지만 경품추첨 이런 게 있습니다. 경품추첨도 보조금에서 100% 다 사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경품구입비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회단체가 됐든 직능단체가 됐든 어떤 이런 자기네들끼리의 아니면 자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런 행사를 치를 때에는 스폰이 됐든 물품을 기증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단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100% 다 보조금에서 경품구입비로 지출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는 스폰도 많이 받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다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구입을 여기서 보조금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면밀히 챙겨봐 주시고, 주민·시민·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거잖아요. 좀 더 투명하게 원칙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확인한 거는 농업인의날 행사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따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행사를 치르신 가래떡데이에 대한 정산보고서도 조만간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아직 접수 안 됐는데 접수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영수증이 없는 정산보고서에서도 매우우수라고 작성하신 거에 제가 불편함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챙겨보시고 어떤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2번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및 농가보험금 수령내역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신청 품목 17개 품목 돼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품목이 많은데 17개 품목에만 한정 돼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거는 아니고요. 보험제도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신청한 내용만 여기에 발췌해 갖고 표기를 한 겁니다.

○**박해운 위원** 그 이외에 좀 더 확대할 이런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품목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개 정도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운 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갖고 다른 품목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박해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예산성립후 50% 이상 삭감현황표에 보면 삭감사유가 사업포기 하고 대상자 없음 이래 돼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업계획에?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일단 케이블카 경관작물은 청풍면에서 당초에 신청이 돼갖고 이렇게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이장님이 주도를 했는데요. 이장님의 병환으로 그 후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래 갖고 그 과정에서 병환이 발생했을 때 마을에서 포기가 들어와 갖고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돼있는데 저희들 그전에는 입석어린이 집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다른 지원을 받는지 저희한테는 신청이 안 돼 갖고 대상자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사유에야 있겠습니까마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되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 2022년도 16농가, 34명으로 돼있는데 기타가 5명이 있더라고요, 5가구가. 이게 어디 때문에 5가구가 기타로 들어와 있나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이거는 시내동 같습니다, 이거는. 먼 단위는……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갖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보통 기타라고 표현을 잘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라고 돼 있어서 그거 정확히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번,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등 3건에 예산액 1억 5,856만 원, 집행액 4,285만 원, 불용액 1억 1,571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부진, 신청자 사업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7건에 예산액 4억 2,747만 7천 원, 삭감액 3억 7,628만 4천 원이며 삭감사유는 국·도비 내시변경,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공비축 미곡포대 제작 등 11건이며 2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1건입니다. 명시이월인 축산악취개선사업은 2022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질제 지원사업 등 4건이며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8번입니다. 6월이내 하자담보책

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준공한 금성면 농특산물 홍보야립간판 이전설치 등 4건이며 4건 모두 금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고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5건에 용역비는 9,576만 원으로 2022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용역 등 농산물 판매 2건, 원예산업 및 식량발전계획 수립 각 1건, 농산물우수관리안전성 분석사업 용역 1건입니다.

11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위원회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건은 개최실적이 없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2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내 2개동 36㎡을 증축한 사항입니다. 용도는 자원봉사자 휴게소, 유기동물 안락사 및 창고로 이용하고자 증축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4일 316회 정례회 시 홍석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관내 쌀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처 인센티브 제공 검토 건에 대하여는 친환경쌀 소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 예정이며, 유통축산과 소관 공약사업 3건 추진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축산물 유통입니다.

가번, 농축산물 유통사업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마케팅 등 4개 사업에 시비 10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10월 말 현재 4개 사업에 1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번,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 및 자체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1월~12월 중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등 2건의 행사에 11개 단체 및 농가가 참여하여 1억 3,362만 3천 원을 판매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 용산구청 비대면 직거래 운영 등 2건의 행사에 32개 지역 단체 및 농가가 참여하여 7억 9,008만 7천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다번, 지역쌀 유통실적 및 축산물 소비 촉진 실적입니다.

2021년 11월~12월 판매실적은 38t에 3,900만 원이

며, 2022년 현재까지 103t 1억 3,600만 원입니다. 축산물 소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라면, 농산물관련 축제 개요 및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제2회 봉양읍 박달 콩 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21년 11월 27일~28일까지 2일간이며 봉양읍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주포리 일원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소요예산은 보조금 3,500만 원이고, 농산물 판매액은 1억 원 정도로 추산하였습니다.

다음 제20회 월악산 한수양과 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22년 7월 8일~10일까지 3일간이며, 월악산양과영농조합법인 주관으로 한수면 한수체육문화공원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소요예산은 보조금 4,500만 원이고 농산물 판매액은 7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제1회 덕산면 양채 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22년 7월 8일~10일까지 3일간이며, 덕산면 양채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덕산면 근린공원에서 1,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고 농산물 판매액은 5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번,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금성면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는 부지면적 4,513㎡에 건물면적 3개동 186㎡로 금년 말까지 제천시반려동물협회의회에서 운영하고, 2023년부터는 올해 공모에서 선정된 함께하는 동물세상에서 향후 3년간 운영예정입니다. 위탁운영비는 2억 8,300만 원이며 직원은 5명, 보호가능동물은 44두이고, 주요업무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관리입니다.

나번,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 11월~현재까지 유기동물 발생현황은 243마리이며, 반환 및 분양 160마리, 자연사 및 안락사 56마리, 현재 보호 27마리 보호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021년 2억 8,800만 원이고 2022년에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다번, 향후운영계획입니다. 올 12월 말부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수탁자 공개모집 결과 단체가 2개 단체가 응모하여 11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12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위탁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현황·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등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45두이며,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마리당 35만 원이며, 상반기 77두

를 추진하였고 하반기 중 68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불편 및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관련 예산 증액 및 사업참여 동물병원 확대 등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과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산물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현황입니다.

가번,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75개 단체·1,035농가에 26개 품목·4만 9,670건·9,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721농가에 26개 품목·7만 9,684건·1억 5,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운송비 지원 현황입니다.

제천시하늘뜨레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운농협, 금성농협, 남제천농협 등을 통하여 출하된 오이, 사과, 양채, 복숭아, 감자 등을 중심으로 공동선별기와 운송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12월 중 3만 5,880건에 1,488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현재까지 11만 9,600건에 3,815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표시제 위반 현황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홍보를 통한 농산물 유통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5,066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감사합니다.

○이경리 위원 1페이지 봐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1페이지요?

○이경리 위원 1. 1페이지.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을 보면요. 국·도비내시변경 자료의 자체사업 3건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액삭감 됐는데요. 2020년도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취소됐는데 왜 올 당초예산을 세울 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2021년에도 사업이 취소가 됐었고요. 2022년에는 조기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코로나가 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코로나가 지속되는 관계로 해서 단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래도 작년 말씀에도 보면 거리두기는 있었다고 보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너무 빨리 그래도 풀릴 거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시간은 좀 더 두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또 9페이지 봐주세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지역에 몇 군데 동물병원과 계약을 하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5개 동물병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시에 15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신청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이경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개의 병원하고 운영...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5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5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시가 운영관리비로 연간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동물보호센터에 작년에 2억 8,8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2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경리 위원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조금 줄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경리 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2억 8,800만 원이었다가 2억 8,300만 원으로.

○이경리 위원 부서에서 볼 때 관리운영에 문제점은 없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당초에 유기동물 진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

서 특정병원에 편중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한테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서 상당 부분 많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그쪽에 자원봉사자나 그다음에 안락사 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또 저희들이 일부 증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리 위원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센터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센터동 옆에 빈 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 부지인데...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곳에서 산책을 시키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거기에 반려견 운동장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하고 보호하는 동물들도 이렇게 산책도 하게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가 농지로 돼있었고 동물보호시설 부지로 돼있지 않아서 할 수 없었고 그랬는데, 현재는 동물보호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그게 보면 민가가 1집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혹시 설득이 된다면 그쪽에 시설을 해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도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반려견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내년으로부터 위탁자가 바뀌잖아요. 그분하고 해서 상의를 해서 주민하고 잘 협조를 해서 동물들이 편하게 운동도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리고 또 인도적처리와 사체처리 비용은 월평균 어느 정도 나오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인도적처리.

○이경리 위원 안락사.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인도적처리는 2021년에 4번했고요. 2022년에 3번을 했는데 처리비용은 한번 할 때마다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체처리 비용은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비용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인도적처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수의사가 동물보호센터로 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게 돼있고요. 현재 정선 다나동물병원 수의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천의 수의사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제천업체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제천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영수증을 보면 인도적처리비 정선 다나동물병원으로 저는 그곳으로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수의사분이 오신다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렇죠.

○이경리 위원 그리고 그분하고 점심식사까지 하고 폐기물처리 비용은 따로 또 원기업에 보내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동물사체는 폐기물처리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날 인도적처리를 하는 날에는 수의사가 제천에 와서 또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식사한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료에 있는...

○이경리 위원 예, 자료에 보면 있어서 저는 정선까지 가신 줄 알았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정선까지 간 건 아닙니다.

○이경리 위원 일단 이런 건 확인해 줘보시고요. 또 건물 내부시설에 청소와 소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제가 들은 바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매일 청소를 하고 소독은.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소독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물이 많이 이렇게 1군데 모여있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씩 나긴합니다. 나긴 하는데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하여튼 좀 더 좋은 약품이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약품처리도 있지만 환기도 많이 시켜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또 아이들, 그때 동물센터에 제가 그때 가보니까 많이 아파하는 동물도 있었고 너무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도 있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또 보면 현행 동물 보호 조례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포획·보호조치 하는 경우 동물보호 시스템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시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센터에서 유기동물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관리로 안전한 보호를 해 주시고 10일 안에 최대한 소유주

를 찾아주시고 입양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다른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질문인데, 2쪽에 수의계약현황 그리고 4쪽에 용역 발주 현황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보편적으로 우리 유통축산과도 관내보다는 관외가 많다. 이 부분에서 저희,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천에 전문가그룹이 없어서 그런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2쪽에 맨 위에 내수면인공산란장 개보수 3천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에 해당 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이거는 예산이 3천만 원이고 2건으로 나눠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나눠서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박영기 위원 그래서 액수는 3천만 원으로 돼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돼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전문가나 어떤 저기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시면 이쪽 부분도 이래 전문가그룹을 형성을 하든 연구나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영기 위원 그래서 유통축산, 특히 지금 올라와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내수면이 됐든 축산브랜드가 됐든 이런 쪽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도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있을 거로 보는데 다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번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천 한우브랜드가 뭐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현재는 제천일품육입니다.

○박영기 위원 일품?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일품육.

○박영기 위원 제천일품육이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박영기 위원 이게 황초와우라고 옛적에 있었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있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바뀌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당초에 황초와우로 있다

가…… 잠깐만요. 황초와우 브랜드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아마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황초와우로 있다가 그것이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제천 의림지한우로 바뀌어서 2019년까지 시비보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 운영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생산에서 관리까지 해서 사료·종자·사양관리 이런 게 다 통일된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그 브랜드로 인정을 해 주는 너무 과도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2019년도부터 다시 제천시브랜드를 제천일품육으로 용역을 해서 제천일품육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고, 올해부터 일품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선포식을 해서 지금 20개소 정도 업소를 일품육 브랜드 사용업소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 지역에 어떤 특산물 브랜드는 일관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초와우가 됐든 아니면 제천일품육이 됐든 꾸준히 변치 않고 전 국민들이 제천 이러면 제천한우, 제천일품육 이게 진짜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도록 지속적인, 자주 이래 바뀌지 않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박영기 위원 향후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제천한우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육질이나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육질은 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 이런 브랜드를 우리가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큰 고민과 자주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홍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지적 아닌 지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송계양파축제가 예산이 얼마 지원되시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올해 4,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4,500만 원. 과장님 만약에 축제를 치르실 때 혹여나 현장에서 식사를 못하고 그러실

것 같은 경우에는 제천 쪽으로 나와서 식사를 하게 되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정산서를 보니까 세부내역을 자세히 보니 다 충주업체에서 다 들어왔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저도 그 사실을, 그 내용을 듣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제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충주에 가서 다 사면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제천에서 구매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축제추진위원회 쪽에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간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올해에 와갖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해서, 내년 축제 때부터는 그런 거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산은 제천시에서 받고 물품구입은 충주시에서 한다. 차라리 충주시 예산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글썽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위원장 권오규 이거 인지를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주지를 시키셨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거는 문제가 크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래서 하여튼간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에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산 양채 축제가 올해 1회죠? 거기다 예산이 얼마?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거기는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농산물 출하축진대회 예산 얼마 들어가시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거는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1,500만 원. 행사기간이 둘 다 어떻게 되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축제기간 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축제기간 내에 그 현장에서 하시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출하축진대회 하고 저기는 성격은 좀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규 틀린데 예산편성에서, 어쨌든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대설치든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위원장 권오규 별도로 무대를 설치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을 때 무대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가는지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정산서 올라온 거 보면 별도로 다 돼있어요. 장소가 틀린단다가 아니면 예산이 들어간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양채 축제는 3일을 하는데 7월 8일·9일·10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했어요. 그런데 이게 7월 9일 날인가 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대회를 같이 했는데 예산은 따로 나가서 다르게 들어왔다, 이거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는 건적서 하고 납품서가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도장은 찍혀야 되는 게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여기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거 시정 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다음에 공무원분들부터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정산서를 보니 같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데도 편철이 틀려요, 편철이. 그러니까 정산서가 먼저 오는 데가 밑에 정산서 오는 경우도 있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거는 일관성 있게 와야 되지 않나. 사람이 틀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틀을 제가 알고 있는데 순서가 맞아 떨어져야지 보는 입장에서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상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서류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봉양삼거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준공 후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당장 조치내용은 주민 의식개선 및 마을발전 참여의지 제고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역 컨설팅을 지원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담당 컨설턴트가 해당 마을에 이장님도 방문을 하고 또 법인대표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봤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해서, 단계를 마을에 어떤 소액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해당 지역인 솔티마을이 아닌 삼거리 마을 전체에 필요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을 해서 가능한 한 마을주민들이 협의하에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 :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팔송지구 가물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일정에 추진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금 명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준설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레미콘이 파업관계로다가 공급이 안 되는 관계로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급이 아니면 사급이라도 가능하면 구입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이상 설계변경 사업변경 사업비 현황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리모델링공사가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25.4%로 설계변경사유는 본 해당 시설이 음식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HACCP 인증이라든가 관련 인허가 및 절차에 따른 시설보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익계약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청전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청풍면 도화리 마을만들기사업 토목공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예정일 내에 모든 사업은 준공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써 안전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역시 작업은 다 됐는데 레미콘수급 자체가 안 돼서 공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레미콘수급업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6개월이내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정비사업 외 14건으로써 특이사항 발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고, 다만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프로젝트 예비계획 용역은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탈락사유는 저희가 인구소멸지수가 다른 선정된 피산이나 옥천지역보다 비율 자체가 높은 관계로 인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로컬푸드 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서면심의 관계로 수당지급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3건으로써 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문화생활관 2건과 농약전수관 1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건축물대장은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선8기 농업·농촌공약 관련 부서별 추진계획 및 예산 성과 이에 대해서 현재 친환경 등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GAP 등 우수식재료 생산기반 확대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좀 더 학교나 공공급식먹거리 추진에 확대해서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중·소농, 영세농을 위한 대책 및 추진사업입니다. 이제 지역의 소농들을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연중생산기반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로컬푸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촌상생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4개소로 현재 봉양읍과 금성면은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준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액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옥전1리 마을만들기 외 9개소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축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2년도 금년에 내에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에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홍보실적과 2022년도 지원현황은 제출해 드린 서류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로컬푸드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금년도 3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매년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업도 확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 한 두 달 정도 로컬푸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여러 가지 지출문제라든가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련 고문변호사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현재까지 매해 10가구씩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백운면 덕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구로다가 부득이 어떤 이런 거 지적에 대한 정리가 선행이 돼야지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사업변

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이미 건물이 준공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라서 대상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다. 이걸 차후에 대상지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추진 및 거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귀농인의 집 수산면 대전폐분교를 활용한 귀농인의 집은 현재 기초공사가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연문리에 대한 귀농인의 집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현재 지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귀농인의 집 국비지원, 기존에 봉양읍에 설치된 귀농인의 집은 현재 귀농인이 임차해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금년에 7기로서 지난번에 3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1월 말 현재 18가구가 우리 제천시 관내에 정착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제천시 하늘뜨레 공동사업법인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에서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아직까지 실적이 약간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산물유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풍작이나 흉작, 여러 가지 자연재해 요건에 따라서 생산량 자체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 연말까지 되면 작년도 실적을 좀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관내의 농산물이 적기에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인 지도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과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 보조금 위법사례 조치현황은 없으므로 자료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질문하고 그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박해운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상생과장 김영동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어떤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운 위원 직접 생산하고 포장하고 또 가격도 생산자가 정해 갖고.

○농촌상생과장 김영동 예, 그렇습니다.

○박해운 위원 판매하는 먹거리를 보장하는 그런 로컬푸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죠?

○농촌상생과장 김영동 예.

○박해운 위원 현재 로컬푸드는 차별화되지 않아요, 가보니까. 다른 시장에 파는 것이라 명확하게 구분도 없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상생과장 김영동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도 드시겠지만 정확하게 차별이 된 거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농산물은 생산자 실명제로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서 보시면 각종 품질마다 생산자 이름과 이런 게 돼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생산자의 명예를 걸고 한다 그게 되고, 일반시장 가시면 거의 그런 거는 있지 않고 상품명하고 이런 것만 있어서 그게 차별화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내년부터는 아마 6월부터 우리가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따른 잔류농약검사를 전 품목에 물론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잔류농약이라든가 그런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차별화된 거고요.

나머지는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어떤 차별화된 농산물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장락점 임차료가 얼마죠?

○농촌상생과장 김영동 한 480여만 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486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김영동 예, 맞습니다.

○박해운 위원 대부분 그분들이 임차료가 비싸다고 다들 해요. 저 역시 그만큼 비용이 매월 나간다는 데서 참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코로나가 있을 때는 착한임대료 그래 갖고 운동을 해 갖고 임대료도 적게 주고 받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없이 매월 그렇게 나왔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박해운 위원** 그 대지와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제가 정확한 평수나 이런 거는...

○**박해운 위원** 대충, 대략으로.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사실 산정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공인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임대료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는, 저도 정확히 올 7월부터 와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이걸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주변에 부동산임대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부동산중개업소 내지는 그런 데 통해 가지고 아마 가격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인, 아까 제가 로컬푸드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다고 전반적으로 로컬푸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집행도 근로자채용관계, 전반적인 게 문제점이 많이 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서상의 해석에 대한 문제 또 운영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를 조사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시 관련 자문,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그거는 개선하고 또 불필요하게 지출된 부분은 회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 관계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 공인 협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요. 내년부터는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공정하게 임대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해운 위원** 처음부터 계약할 때에 좀 더 감정을 받아갖고, 모르는 것도 거래하고 건물이나 이거할 적에 저희도 공유재산을 살적 때에도 민간이 살 때에도 감정기관에 2군데를 걸쳐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에 정확하게 신경 써 갖고 했었다면 이 정도는 나오지 않았지 않겠나 싶어요. 대부분 거기가 장락이니까 외곽지역이 아닙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박해운 위원** 외곽이고 위치나 또 소비자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제천에서 그 정도로 임대료가 나가냐 의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도 와서 한 달에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가 나가는 것을 보고서 과연 이게 이 정도 나가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부동산중개

업소를 방문을 해서 한 5군데 정도 여러 가지로 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해당 부지가 건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변 부대적인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면적 관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떤 데는 그 이하로 가격이 제시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평당 보면 임대료가 층마다 다른데요. 5만 원~3만 원, 대지 빼고 건물 면적만.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게는 최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건물만 해 가지고 했을 때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도 있고, 전체적인 걸 포함하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다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임대료 산정해서 지금 명령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것들이 예산으로 많이 집행이 돼있더라고요. 이게 자료요구를 해 갖고 진짜 자료를 보니까 진짜 이게 집행하지 않아야 될 게 많이 집행됐는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소득세 하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봉급에서 공제해 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박해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 돼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거도 저희가 앞서 한 두 달 정도 로컬푸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저희가 제출된 서류금액 자체를 저희 지원해 준 예산에서 나간 건지 아니면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서 나가고 정산을 한 건지,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위탁금이 됐든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 공공지원예산에서 나갔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반적인 게, 그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운 위원** 예, 몇 가지 짚으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드는 게 아닌지, 여기 보니까 전 직원이 들은 것 같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료에 나오기는 운전자보험이 지출이 돼있습니다, 집행이. 그리고 승강기 유지비가 또 보수유지비가 돼있습니다. 임대하는 사람

집주인이 유지비를 내지 임대한 사람들이 승강기까지 집행하는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다시 또 회계절차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운전자보험 중에서 이제까지 탄 사람이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박해윤 위원** 모르시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박해윤 위원** 한번 상세히 한번 보셔갖고 이게 운전자보험이 이렇게 들었는데 분명히 탄분이나 있지 않겠나. 이게 그러면 운전자보험이 소멸성이예요, 환급성인지. 제가 보기에는 환급성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한번 그것도.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게 일부는 아마 환급성도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기간이 끝나면 환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상에서 나가고 그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운전자보험도 탄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돈이 환급받는데 어디로 갔는지, 어느 분이 탔는지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박해윤 위원** 그리고 조합장님이 월급을 받으니까? 조합장님.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서류를 저희가, 그 문제도 인건비 관계도 원칙은 저희가 예산부기라든가 범위를 벗어나서 지급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상인조합장이 아니고 비상임입니다, 이분이. 비상임이면 월정급여가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여기 보니까 조합장 인건비가 월 350만 원씩 13개월이 돼있어요, 예산에. 알고 계십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 부분도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발생하는 수입에서, 그러니까 우리 위탁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 발생하는 수입금에서 조합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리적으로 확인하고 해석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조합 자체에서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발생한 수익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이게 거의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한 사업이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이 발생해도 시의 승인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거친 다음에

여러 가지 승인 후에 쓰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인절차라든가 그런 것 없이 지출된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고 이런 부분도 해서 저희가 정확한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보면 2021년도 교육비 항목에 보면 강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도 나갔더라고요, 강사수당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도 서류를 보니까 조합장 강사비 이래 가지고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그거를 보고서 전반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시에서 로컬푸드에 1년에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1년에 인건비 다 포함해서 6억 3천만 원입니다.

○**박해윤 위원** 6억 3천만 원이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부대사업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작부체계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사실은 로컬푸드 조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생산자 조직과 작부체계 구축을 하는 게 사실 로컬푸드 생산자조합이고,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2차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거의가 로컬푸드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포커스 자체를 어떤 체계적인 준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 판매에 급급하다 보고,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보니까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한 이백여 분 이렇게 좀 더 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그거지 이게 나는 몇 월~몇 월까지 이 물품을 생산하고 다른 사람은 그다음은 작게 하고 이런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로컬푸드조합은 판매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향후계획에는 유통판매에 전문성을 띠는 그런 데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로컬푸드조합은 생산자 조합단체로서 어떤 작부체계 구축이라든가 그런 쪽에 전임하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실제 납품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돼요? 300여 농가 중에서.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300여 농가 중에서 실제 가장 많이 연중하는 농가는 20농가, 30농가밖에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꾸준하게 되는 데는. 어찌

다 되고.

○박해운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0중에 172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200만 원 이상 하는 농가는 25농가밖에 안 돼요. 그 25농가가 매출을 올려주더라고요, 대부분요. 나머지 뭐야 120개 농가는 소농인데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래서 저희가 앞서 작부체계라든가 로컬푸드조합에 육성을 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그런 소농의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시설 하우스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지원 또 이제 유희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데 활용 안 하는 것들도 일부 있고 해서, 물론 소유주가 어떤 너무 연로해서 가지고 그렇다 그런 것도 있지만 11월 10일까지 작부체계에 대한 기본조사를 읍면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맞춤형 행정지원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낡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 근로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용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농이라든가 어떤 그런데 알선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농을 위한 로컬푸드와 사실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로 나온 거에 비하면요. 맞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박해운 위원 그리고 로컬에 14명, 열 네 분이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인건비는 보니까 운영비에 몇 프로가 차지합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3분의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해운 위원 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3분의2 정도.

○박해운 위원 제가 보니까 한 70%,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벤치마킹을 완주 로컬 거기 가서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거기 갔을 때에는 우리가 제천의 로컬푸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하느냐 물어보니까 카드수수료 7% 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건비를. 대체했다는데, 저희들은 운영비의 70%, 80%가, 초기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도 앞으로 그런 거는 손익계산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초기고 이렇다 보니까 생산농가에 대한 참여유도 여러 가지 그런 시책 차원에서 카드수

수로 다 포함해서 수수료를 7%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2.5% 카드수수료로 빠져 나가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수료도 현실화 시켜야 되고요. 수수료가 현실화 된다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쓰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해서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수료를 우리가 너무 또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하농가 자체가 출하도 꺼려지고 실제적인 소득에 반감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물류시스템이라든가 우리 또 로컬푸드가 아닌 다른 시장에 판매되는 수수료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정한 선에서 한번 조정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합장의 진짜 역할이 뭔지 궁금합니다. 조합장의 역할이.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사실은 로컬푸드조합이 생산자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장은 생산자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직화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로컬푸드 자체가 처음에 생산자 위주의 그거로다가 운영이 안 되고 판매 위주의 그런 운영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솔직히 그분들한테 판매실적만 가지고 또 독려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팔았는데 올해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아마 조합에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이런 선례가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위원 대부분 그렇죠. 사무국은 사무국장님이 잘 운영하고 그런데 판매·즉매, 판매에 급급하더라고요, 여기요. 운영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위원 그러고 보면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행정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무국장님이 행정하고 대부분 많이 겸하는데.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거기에 대한 직무진단이라든가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합에서 운영되는 상황은 사무직 직원들도, 아까 운전자보험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이 필요하면 자기네들 자가용을 가지고 물건 수납이라든

가 그런 것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거는 명확하게 그분들 업무에 대한 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또 별도로 저희가 문제점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박해윤 위원 예, 과장님 쪽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상당히 많이 내재 돼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안타깝습니다. 좀 더 과장님께서 로컬푸드를 잘 되게끔 서로가, 저희들도 협력하겠지만 환수조치할 거는 환수조치 하시고 또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회계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민의 농촌유입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3천억 원이에요. 30억 원. 이게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더, 가능할 것 같아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러니까 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걸 제가...

○김진환 위원 전반적으로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일단은 수료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한 5가구, 6가구 정도는 더 우리 지역에 정착을 희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한 1년이라도 주변에 부지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게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수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비, 귀농인의 집 사업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이라고 추진하는 상가에 가보면 이미 거기 와서 내가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정착 여부를 한번 하겠다 그러는 신청자나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 생각은 그런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또 우리 지역정착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부분 기여를 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때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을에도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집짓고 와서 살만한 부지가 나오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문의도 많이 들어

오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처음부터 주민과 대화는 없었나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거는 충분히 사전에 마을주민들도 건의도 된 게 있었고요. 마을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마을주민들 생각 중에 하나는 사실 이분들이 와서 마을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손을 갖다가 일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0가구가 오면 최소한 1집에 한 10명만 생각하더라도 바쁜 시기에는 귀농이나 살러오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농사기술도 배울 겸 해서 농가에 일손도 같이 거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는 기대가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 저런 사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김진환 위원 저희들이 그때 그 자리를 갔을 때 보면 마을주민이 와 갖고 이장님 와 갖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누가, 그러니까 누가 사업주인지 아니면 이장님이신지,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을주민과 너무 대화가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보면 철거비, 처음부터 철거한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당초에는 철거를 계획했었어요. 철거를 계획을 했는데 안전진단 하고 그거 되다 보니까 일단 신축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마을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 어떤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마을에 필요한 어떤 작은 공방이 됐든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김진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철거하는 거보다 새로 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런데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다 보면 철거비가 들어가고요, 일단은. 신축에 따르는 신축비용이 들어가고, 두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김진환 위원 저는 처음부터가 아예 철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철거를 안 하고 거기다가 또 리모델링 하고 쓰니 거기에 돈이 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벌써 또 예산 차이가 나는 거고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일부는 예산이 우리가, 예산잔액 중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철거비 플러스 리모델링은 보태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전반적으로 얼

마나 더 추가가 더 될 것 같아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제가 정확히, 리모델링도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되지만 최소한 철거비용에 플러스해 가지고 한 30%, 40% 정도 추가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진환 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보통 30억 원에서 많게는 또 한 40억 원, 50억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잘 하면 비용이.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추가 비용 없이 거기서 다 사업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설계라든가 금액 자체를 검토해 본 결과 어떤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사업비에서 다 가능한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 10가구를 위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수료를 하고 과연 여기서 한 5가구가 남는다 그래요. 그래 만약에 우리가 30억 원, 40억 원 나중에 많게는 50억 원까지 올라가면 이 5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10억 원씩 투자할 값어치가 있나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게 당해 연도로 보면 5가구가 되지만 기간이 1년씩이예요, 기본이. 그러면 매년 10가구, 거기에서 제 생각은 매년 10가구 들어와 가지고 5가구만 남더라도 그게 되면 연차적으로 또 진행되는 그런 건물 자체가 계속 존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1년만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겠지만요.

○김진환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5가구들이 만약에 10억 원씩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장기전으로 봐서가 아니라 저는 이 돈으로 차라리 체천시민을 위해서 다르게 사업 추진을 했으면 이런, 처음부터.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거보다도 저희가 인구소멸도시로다가, 다른 군 지역을 제외하고 시 지역에서 이런 인구소멸위기까지 오고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은 가장 시급한 게 우선 인구가 소멸되고, 인구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여러 가지 도시기능이 됐든 뭐가 됐든 가능한데요.

우리가 30억 원을 투자하고 40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지역소멸론 자체가 없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쪽의 접근보다도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인구를 갖다가 꾸준히 정착하고 늘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그냥 이 처음부터가요. 저는

처음부터 이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지 참 그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도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어떤 기한이나 기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위원님께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다 착공이 돼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시발점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이게 우리 지역인구와 밀접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추진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전)시장님들이 잘못된 거네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잘못했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증가 어떤 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하나의 정책사업이 결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업은 그런 어떤 인구에 대한 소멸위기 그런 거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게...

○김진환 위원 그런데 인구증가, 지역 활성화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어떻게 추진했고 왜 지금의 이 상황이 왔는지, 과연 이분들에게 5가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내야 되는지 그런 게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좀 더 저희들이 추가비용도 안 들어 가게끔 해 갖고 이 선에서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무튼 시작이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항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별히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세요. 농촌상생과에 좀 더 활력적이고 어떤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촌상생과로 인해서 농촌 마을에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농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어떤 힘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저도 자료검토를 해 본 바를 보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위에 우리 또 소장님 함께 힘쓰셔서 혈세가 공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인의 집 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방법도 많이 고려가 돼야 할 것 같고요. 1년 살아보기가 도시민들의 쉽, 휴양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방법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의 소득, 임대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고 진짜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해서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나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38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농촌상생과에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인구, 도시민 유입에 따른 농촌지역 활성화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이주민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마을 유지 등 이렇게 해서 전원마을 조성의 기대효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먼 지역에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5가구, 10가구 이렇게 자기네들이 집단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도 어떤 혜택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 사업은요. 10가구 사업은 전액 해당 주민, 다른 외지에서 친목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야 되고요. 또 건물을 60% 이상 지어졌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확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더니 기존에 와서 이미 1채, 2채 집이 완공이 돼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현장마다 다르다 보니까 사업 신청해서 나가 보면 이미 기존에 돼있는 게 포함이 돼 가지고 신청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가구를 안 했고, 신청한 데도 보면 인허가 상 문제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 세워 놓으면 그 해 집행을 못하고 또 이월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허가라든가 모든 게 가능하고 이런 게 됐을 때 저희가 추경예산이 됐든 그때 세워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존에 건축물이 들어와 있거나 이러는 건 대상에서 벗어나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10가구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10가구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페수 처리시설 등 이렇게 돼있는데.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런데 그건 공공기반시설이예요.

○박영기 위원 그렇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5가구 정도가 이렇게 집단형성 돼서 새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설계가 허가가 다 났다든지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농촌상생과 하고 협조를 하면 이런 부분은 위원이 가능한 겁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저희가 해당 지원조례나 관련규정을 좀 더 보고 만약에 10가구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면 관련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서라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고, 일단은 저희가 해 주는 거는 어떤 지역에 이런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실제 땅을 구입하고 정착을 하기 위함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타 부서, 수도사업소 하고 문제가 조금 돼서 저에게 민원이 접수된 건데 수도를 놔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 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로컬푸드 장시간 우리 박해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집행내역을 보면 쏠아볼게 많은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어차피 고생하시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설 명절 보너스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권오규 설 명절 보너스 이렇게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 전반적으로...

○위원장 권오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아들었고요. 제가 여쭙보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조합장도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래 보면 2020년도 1월 달에 26일 날 전체로 나갔어요, 직원을. 보너스가, 설 명절. 그리고 나서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현욱씨라고 또 계셔. 이 분은 1월 30일 날 또 나가셨어.

이걸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로 저희가 봤을 때 정산내역을 보니까 진짜 다시 말씀드리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적극 검토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또 하나 임대료책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건물이 또 하나 있죠, 기존의 건물. 지금 있는 로컬푸드 장락동에 있는 옆에 건물.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컨테이너박스 같은.

○위원장 권오규 아니요, 아니. 박달명가인가 뭐 있죠? 옆에 건물. 기존에 있는 건물. 로컬푸드 건물 말고 장락동에 있는 거.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박달명가 식당이요?

○위원장 권오규 예. 거기 임대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잘 모르시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임대료 측정 하는데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건데 부동산만 저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는 거 하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감정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얘기가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여쭙보는 건데요.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보통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거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천시에서 시내에서 살고 있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먼으로...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렇죠. 읍면지역에.

○이경리 위원 이사를 가는 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 하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이경리 위원 그건 아니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니죠.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몰라요. 허위로 주민등록을 어떻게 이래 해 가지고 있다가 아마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 데서 주민등록을 옮겨왔다가 한다가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혹시라도 되면 저희가 진위여부라든가 따져서 지원된 보조금이나 그거는 또 회수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일부 밖에 나가서 집을 짓고 시에 거주하다가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일부 문의를 해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지원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 오전으로 정회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 하고 오후에 할까 어떠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오후에 하시는 걸로?

지금 과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저기 외지에 계셔 가지고 좀 그런데, 부서장님들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의견 어떠신지. 그게 좋으실까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배려 차원에서, 1시가 될지 2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러.

그렇게 하는 걸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

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 1번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6차 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개소 9천만 원으로 가공 창업농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농산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은 1개소 완료되었고, 2개소는 현재 가공장비 납품완료 되었고, 원활한 제품생산을 위해서 장비에 대한 기술습득과 인허가 등 사업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품질개선과 소포장으로 경쟁력을 올려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페이지, 2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미래의 영농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소로 개소당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며, 현재 사업추진은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료자동급여기, 자동환기시설, CCTV 등 장비설치가 완료되었고, 최종점검하며 현지출장 하여 사업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이 발굴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기술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대리석 구매설치 외 4건에 대해서 8,2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2년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센서기반 부속도측정기 구입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대기실 설치공사 등 8건에 대하여 1억 7,7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입니다. 사고이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공정실 자동도어 설치 외 7개 사업에 사고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 완료하여 GMP인증 심사 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사업목적 달성 및 현행 법률 상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기능성식품 인증 및 HACCP인증 의무적용에 따른 보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농림부 및 충북도를 방문하여 2021년 12월 1일 날 이월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9월 14일 홍석용 의원님의 시정질문 후소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농작업 인력지원 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역농협 위탁 가능여부입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 민간위탁은 경상수지적자 및 농업기계 관리부실, 조합원 집중해택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향후 농업에서 민간위탁 시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인상, 신기종 추가구입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임대사업소 위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협의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은 전제조건인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에서 자격조건 완화여부에 충분하기에 향후 농협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 민선8기 농촌농업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질의내용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시범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260% 증가한 10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수수 신품종(청풍찰수수) 보급사업 및 잡곡 노동력 절감 기계화 외 8건에 42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 외 26건, 93개소에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하며, 저희 인력은 총 30명으로 본소에는 20명, 순회수리 3명, 농작업대행·농기계 운반 포함입니다. 중부 3명, 남부 4명, 북부 3명에 상담소장 포함,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총 186종류 46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에는 58종에 164대, 북부에는 39종에 82대, 중부 38종에 85대, 남부 51종에 136대를 임대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과 1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16쪽입니다. 연도별 농기계 구입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랩피복기 등 43종 84대를 6억 2,9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채소이식기 등 14종 17대를 3억 8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농업용베일러 초파기 등 16종 28대를 1억 6,6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올해 2022년도에는 트랙터 등 11종 17대를 3억 4,5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어민이 필요하는 농기계 및 부속장비를 많이 확보하여서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종별·지역별 임대내역입니다.

지역별 임대내용은 총 3,400건입니다. 본소 1,100건, 북부 851건, 중부 607건, 남부 776건입니다. 기종별 임대실적은 17쪽~20쪽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농기계 파손·분실 및 변상내역은 없으며, 농기계임대 사고 처리 내역은 3월 31일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용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굴삭기는 손상되었고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농기계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월 20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부속용탈곡기를 임대해서 작업하던 중 오른팔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안전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사용법 및 작동방법에 대한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실습교육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반 서비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1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 편도 6건, 왕복 389건 해서 총 395건의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올해까지 추진한 농작업 인력지원단 현황 및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4건에 23.7ha의 농작업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가장 많은 작업은 경운 및 비닐피복, 콩탈곡 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농작업서비스의 제한점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농한기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농번기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8페이지, 그쪽은 7페이지로 보시는 것 같던데. 거기에 임대수입이 얼마나 정도 발생했나요, 올해?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임대수입에 임대농기계수입비와 그리고 운반서비스사업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총괄해서 집계를 낸 거는 여기 자료에는 따로 따로 분리돼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몇 페이지에 그게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저희가 운반서비스 운반료 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21페이지 하반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지원단 작업료 하고 해서 인력지원 이렇게 따로 따로 저희가 작업료를 계산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감면료는 그러면 왜 이게 기준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도에서부터 코로나 때 어려운 경기 때문에 감면해 주라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50% 이상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언제까지, 감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지금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농민들한테도 감면료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감면하는 걸로?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

속 기 사 이 상 아